LG, AI로 산업안전 혁신… 예방·관리 자동화 속도

16개 계열사 참여 'LG SHEC' 개최
혁신 사례 21건 중 15건 AI 활용
위험 감지부터 대응까지 자동화



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그룹 안전환경 콘퍼런스 'LG SHEC'에서 LG 안전환경 담당자가 협력사 관계자로부터 AI 기반 중장비 협착 방지 경보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

LG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관리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험 감지와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예방과 자동화 중심으로 전환하고있다.

특히 계열사별 안전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LG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룹 차원의 안전보건환경 콘퍼런스인 'LG SHEC(LG Safety Health Environment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LG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유플러스 등 16개 계열사 안전환경 담당자 35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과 중국, 인도, 폴란드 등 해외 사업장 담당자 20명도 현장을 찾았다.

'드라이브 더 시프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 전환(AX)과 로봇 전환(RX)에 맞춰 안전환경 관리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공유된 21건의 혁신 사례 가운데 15건이 AI를 활용하면서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 전반으로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LG전자는 국내 사업장과 시공 현장에 설치된 CCTV 4226대를 자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연결한 통합 관제시스템을 소개했다. AI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설비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입을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방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작업 영상을 분석해 근골격계 부담을 평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작업자의 허리와 어깨 자세 등을 분석해 위험도를 판정하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다. 기존 30분가량 걸리던 평가 시간을 6분으로 단축했다.

LG화학은 공정안전관리(PSM)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했다. 설비 변경과 점검 등 9개 분야의 관련 서류를 대조해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류 검토 시간을 98% 줄였다. LG유플러스도 협력사 작업자가 위험 요인과 감소 대책을 손쉽게 수립할 수 있도록 AI 기반 위험성 평가 앱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김대식 KAIST 교수 등이 AI·로봇 기술 변화부터 산업안전 정책, 임직원 정신건강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교원라이프, 상조 서비스품질지수 초대 1위

교원라이프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6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상조 부문 초대 1위에 선정됐다. 5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상조 부문 조사에서 전 평가 항목에 걸쳐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교원라이프



두산연강재단, 환경학술상 장암·김형일 교수

두산연강재단이 환경 분야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폐수 처리와 폐플라스틱 자원화 등 환경기술 연구 성과를 알렸다. 두산연강재단은 지난 4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대회에서 '2026 두산연강환경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장암 교수와 연세대학교 김형일 교수에게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두산연강재단



캠코 등 6개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 맞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 금융공공기관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캠코는 지난 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내부통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캠코



소공연, 소상공인 나눔봉사단 출범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 소상공인 나눔봉사단' 제1기를 출범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과 상생 실천에 본격 나섰다. 5일 소공연에 따르면 이번 나눔봉사단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업종별 전문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지속가능한 민간 협력형 봉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호반건설, 동절기 화재·추락 사고 예방

광주 첨단3지구 합동안전점검 실시

호반건설이 겨울철 화재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지난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 '호반써밋 첨단3지구' A7블록 현장에서 동절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변부섭 건설안전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4곳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작업구간의 안전시설과 작업환경을 살폈다. 소방시설과 한파에 대비한 근로자 건강관리, 추락·미끄러짐 방지 조치 등을 확인했다.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은 현장 근로자와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작업 중 위험요인과 안전관리의 어려움을 들은 뒤 안전수칙 준수를 다짐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호반건설은 동절기 안전관리자 직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영진의 현장 점검과 정기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채리 기자 cr56@

대한항공, 美 항공 서비스 평가 3관왕

비즈니스·일등석 등 3개 부문 1위
주요 부문 동시 석권은 이번이 처음
좌석·기내식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

대한항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항공기 고품격 서비스를 인정 받았다. 대한항공은 미국 종합일간지 USA투데이가 주관하는 '2026년 10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 기내식, 객실승무원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항공사 관련 주요 부문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USA투데이는 매년 항공, 공항, 숙박, 여행 등 분야별로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후보를 대상으로 독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상위 1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한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일등석의 좌석과 기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다. 비즈니스석인 '프레스티지 스위트 2.0'은 좌석 등받이를 180도로 눕혀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다.

상위 클래스 기내식은 고급 코스 요리를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일등석 실내복과 침구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 협업 제품을 사용한다. 기내식은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도입하고 사전 주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일반석 장거리 노선의 간식 종류도 다양화했다.

/양성운 기자

예탁결제원, 글로벌 LEI 최우수 기관 선정

글로벌LEI재단 소형 기관 부문 수상

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LEI재단(GLEIF)의 법인식별기호(LEI) 발급·관리기관 평가에서 소형 기관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LEI 시스템(GLEIS) 포럼 시상식'에서 '2026년 올해의 최우수 지역운영기구(LOU)'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 등에 참여하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한 국제표준 코드다. 지역운영기구는 LEI를 발급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예탁결제원은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글로벌LEI재단은 202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지역운영기구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과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40개 기관을 관리 규모에 따라 대형 14개, 중형 12개, 소형 14개로 구분했다. 예탁결제원은 LEI 관리 건수가 5000개 미만인 소형 기관 부문에서 수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포상

제주서 노란우산 발전 워크숍 개최
금융기관 직원 25명에 장관 표창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 확대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기관 유공자 등을 포상했다.

중기중앙회는 4~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026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의 노란우산 담당 직원 19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노란우산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노란우산 가입 유치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 직원 25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이어진 워크숍에선 노란우산 제도개선 현황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금융기관별 고객 응대 우수사례와 영업 노하우를 소개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이 재적가입자 192만명의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준 금융기관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경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소기업중앙회는 4~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026 노란우산 발전 유공자 워크숍'을 열고 노란우산 가입 등에 힘쓴 금융기관 관계자 25명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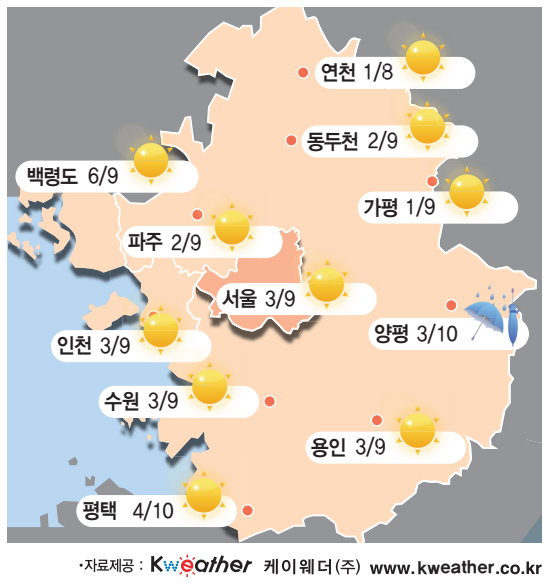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7:02 | 해짐 / 17:29

11월 6일 (금)
음력 : 9월 27일

수도권 날씨
3 ~ 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인 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본부장 이경훈 △검사본부장 박금구

부 음

▲박순돌(향년 79세)씨 별세, 김진수(강원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씨 모친상, 임정진(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씨 시모상 = 5일,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302호, 발인 7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3-261-4441